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2)

(시편 23:1-6)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그의 양이 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보급하고, 사랑으로 지켜줍니다. 이처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 무력하기 짝이 없는 동물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 생명의 부족이 없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관용구로 “나를 회개케 하시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회개한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결심을 할 수 없습니다.

Keller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무거운 몸을 작은 구멍이 안락하게 누이고 평안히 쉬던 양이 갑자기 몸의 중심이 흩어져 더 이상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양은 광기를 일으키며 앞발로 활뛵니다. 양은 이 같은 일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목자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종종 버려진 양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자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십니다.

2.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3절).

우리는 가끔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시 106:5).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였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시며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3. 안전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4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알지 못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절은 죽어가고 있는 이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위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산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겨울을 지내기 위해 산 아래 내려왔던 양이 여름이 되어 산 위로 올라가려면 깊은 계곡을 지나야 합니다. 그 계곡은 아주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지금까지는 원수가 나를 쫓아다녔으나 이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이것은 내적 행복의 절정입니다. 순례자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집은 목자장이 계신 여호와와 함께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엔 야생 동물도 있고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이 골짜기는 햇빛도 없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 있습니다. 시인은 이곳을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종종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시험이 오고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하는 목자가 있으면 양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지팡이와 쇠로 만든 몽둥이를 갖고 다니며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지키고 쳐지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므로 안전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4. 양식이 부족하지 않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5절).

훌륭한 목자는 여름에 양들이 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독초를 제거하고 양들을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감람유를 뿌린 풀을 준비해 놓습니다.

기름과 잔은 기쁨과 번영을 말합니다. 근동지방과 같은 건조한 기후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매우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 놓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기쁨의 잔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크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래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뿐입니다.

5. 천국집이 부족하지 않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리리다”(6절).

지금까지는 원수가 나를 쫓아다녔으나 이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이것은 내적 행복의 절정입니다. 순례자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집은 목자장이 계신 여호와와 함께 있습니다. 가야할 여호와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벧전 5:3-4).

목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양이 되어 모든 양의 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29학기 목회자 세미나 개강

3월6일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내일 오후 2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모 교수의 줄기세포 복제 파문으로 불거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와 윤리의 문제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 등 현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열 명의 강사가 주제별 강의로 10주간 진행하게 된다.

1교시는 지난 학기로 이종윤 목사의 시편 강해를 모두 마치고 이번 학기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

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

2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올바른 말씀이해와 생명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한편 목회자 세미나에서 함께 봉사할 성도들을 찾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의 등록 및 안내를 돕기 원하는 성도들은 내일 오전 10시 101호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한다.

2006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개강

내일 오전 10시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12기 찬양대양성반은 오늘 1시30분 601호실에서 열려

2006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내일부터 일제히 개강한다. 우리교회는 전국시민 양성과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자 구제를 위해 열린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매년 2학기 10주간씩 개강하고 있다.

성경공부를 위한 서울성경대학, 주부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재교육의 장인 주부대학,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즐거운 만남의 장인 살림경로대학, 세계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세계선교대학, 그리고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새세대 부모학교에 모든 성도들이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하여 교회 목표를 이루는 은혜로운 자리로 삼기 바란다.

12기 찬양대 양성반은 오늘 오후1시30분 601호실에서 열린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 바란다.

로잔 Younger Leader 대회

9월23일-30일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로잔위원회에서는 젊은이 지도자 550명을 전 세계에서 초청하는 미래 지도자 훈련을 오는 9월23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기로 하고 한국대표 10명의 추천의뢰가 왔다.

나이는 25-35세에 해당되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이로 영어가 가능해야 한다. 참가희망자는 간단한 신앙경력 및 이력서를 대학부나 청년부지도 목사에게 3월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우리교회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타교회 당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주의 성구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 34:29)

When Moses came down from Mount Sinai with the two tablets of the Testimony in his hands, he was not aware that his face was radiant because he had spoken with the LORD. (Exodus 34:34-35 [NIV])

순례자 단상

미디어 시대 예배의 허와 실

주일 예배 시간, 단상 위로 커다란 영상 화면을 설치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찬송을 직접 손에 들지 않고도 다만 앞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말씀과 찬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이처럼 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영화를 볼 때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영화의 스크린은 기실 빛의 입자가 분사되는 하나의 흰 벽에 지나지 않는다. 극장의 불이 꺼지고 난 뒤, 영사기가 투사하는 빛의 입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웃고 울며 영화에 몰입하게 되지만 그것은 실제의 우리 삶이 아니라 허구로 지어진 영화일 뿐이고, 우리가 동일시하고 감정이입을 했던 배우들과 스토리 역시 은막 위의 가상에 불과하다.

고대인들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일들을 돌을 세우고 글을 새겨넣는 방법으로 남겨놓았다. 시대가 바뀌고 근대에 이르면 종이의 발명과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내용을 돌 대신 종이에 기록하여 간직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대인들의 세운 돌은 지금

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 시간을 초월하고 그네들의 삶과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지만, 중세 이후의 많은 문서들은 그 양과 유통의 혁명에는 성공했으나 고대인의 그것보다는 가볍고 잊혀지기 쉬운 것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시간의 지속성을 담보했던 돌의 시대, 보다 넓은 공간에서의 공유의 동시성이 가능해진 문서의 시대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고 현대는 바야흐로 매스미디어의 시대이다.

거대한 돌과 활자와 종이는 전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웹미디어에 의해 밀려나고 정보의 홍수라 불리우는 인터넷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현대인들이 더이상 무엇인가를 오래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인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지만 특별히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 직접 말씀을 찾고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발음하고 가슴에 새기는 일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구체적인 신체의 움직임도 예배의 한 부분이며, 예배를 통해 드러질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움직임이 주님이 지어주신 우리 신체의 긴요한 용도라는 사실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주를 비롯한 유럽 등 서구에서는 이미 미디어를 통한 예배가 널리 유행한다. 심지어 집에서 TV 수상기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자동화시키는 것들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 역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의 간소화가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현대인들의 오해와 착각을 성도들은 경계하고 다시 한번 청교도가 된 심정으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찬송가를 손에 들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나소정(편집부)

호산나 학교 개교 및 입학감사예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난 3월2일(목) 오후 2시 호산나 학교 학생과 학부모, 성도, 관계자 200여명 모인 가운데 호산나 학교 개교 및 입학감사예배가 열렸다.

호산나 학교 이사장이신 이종윤 목사는 '장애인에게 희망을'(눅4:16-23)이라는 메시지를 하며 "우리나라가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는 우리의 부지런함 때문도 아니요 우연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우를 아껴주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저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호산나 학교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장애우들의 인격, 삶, 미래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 커리큘럼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학교는 장애우들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가 있는 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곳곳을 배움의 터로 삼는 학교, 일반학교에서 처럼 던져주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장애'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학교,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자존감을 찾아주는 학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했다.

한편 학부모형으로 참석하신 한 집사님은 현실과 때를 맞추어 개교한 호산나 학교는 장애우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크고 아름다운 서울교회에 이 사명을 맡겨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발달 장애우나 정신지체우는 교육이 필수이며 교육을 통해 장애를 경감시키고 치료와 동시에 중복 장애를 예방하며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장애 정도가 달라지므로 장애우에게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만이 아닌 생명과도 같은 과정이라고 했다.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드리며 이제 첫 걸음을 떤 호산나 학교가 이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희망을 갖게 되는 작은 겨자씨가 되도록 기도한다.

유태서(편집부)

종탑위에 세워진 십자가



존경하는 권사님!

이종윤 목사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권사님!

남보다 크게 자랑할 것도 없으시고 더 많이 가진 것도 없으시면서 주님께 두 렷돈을 바친 과부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신 권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자녀를 자랑스럽게 믿음으로 키우시고 든든히 교회를 섬기시며 사랑하시는 권사님의 크신 신앙행적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 10년 주택청약적금을 만기일 한 달 남겨놓고 육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바친 분이 권사님이셨다는 것도 최근에 안 사실이었습니다. 못난 이 종을 주님의 종으로 여기시고 지난 5년간 매주일 보내주시는 권사님의 사랑의 공책을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사랑의 빛진 사람으로 이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새 예배당 입당시부터 종탑은 꼭 권사님이 바치고 싶다고 하셨지요. 이제 그 종탑이 권사님의 희생의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종소리 울릴 때마다 그리고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신 권사님 같은 분이 우리교회에 계심으로 서울교회가 이토록 힘차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신 권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권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민음의 가정을 이루며-신혼가정부

둘이 한 몸 되어...

임승한 (신혼가정부)

화창한 봄. 한 해의 시작인 따스한 봄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해는 부족하나마 청년부 임원으로 청년부를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신 많은 선물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인해 같이 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청년부 임원을 마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 하셨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은 같이 청년부 안에서 활동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치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한 것과 같이 그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양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으로 다른 그 어떤 값진 것보다 믿음의 반석 위

에 가정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자가 개인의 신앙 생활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두 사람이 하나 된 가정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먼저 섬김의 도를 몸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로 후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창 2:24)

바로이 선교사 중보기도팀 소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현주집사(4교구)

저희 바로이 선교사 중보기도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복음이 척박한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스브로토 바로이 선교사님을 위하여 매주 기도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은 처음 3명으로 시작하였으나 곧 10명이 되었고 지금은 30명 정도의 기도동역자 모임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기도 후에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



2006/02/21 06:19

니다. 어느 집사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시 잠들면 참석을 못할 까봐 다시 자리에 눕지 않고 새벽기도회시간을 기다렸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화요일 새벽 104호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며 기도의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참석자 중에는 이제 막 서울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도 계시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중보기도회를 인하여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시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는 일에 더욱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천국시민양성

살롬경로대학에 오십시오

이중창 집사(살롬경로대학부각)

제12학기 살롬경로대학이 3월 9일 개강하며 연로하신 권사장로 집사님들의 영혼을 맑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드리는 열린 마당이 펼쳐집니다.

살롬경로대학은 날로 급속히 발전해가는 산업, 정보화 사회 속에서 고령으로 느끼게 되는 고독과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변화하는 세대에 잘 적응하며 젊은 세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도모코자 지역사회 구성원의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살롬 경로대학에 본 교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물론 주변의 친지와 이웃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장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공부, 컴퓨터 교실, 체조, 찬양부의 특별활동이 있고 3월 9일 첫 강의는 100세까지 살아도 허리가 휘지 않고 꽃꽂이 사시는 건강백세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동정

- 이중운 목사는 9일(목) 한국장로교교육원 입학식 특강. 11일(토) 장로교신학회 제8차 논문발표회를 갖는다.
- 이사: 김혜연 박은영 집사 가정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2 향촌 현대4차@ T. 031-381-9919 김한성 이은아 성도 가정(2교구) 강남구 논현동 198-20 신성빌딩 T. 6406-3740
- 전보: 김한성 성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 발령: 김광룡 집사(1교구) 송파중학교 교장
- 득남: (13교구) 박형주 성도 김은성 성도 가정
- 주간 식당 봉사: 도르가전교회(3월5일) 루디아전교회(3월12일)
- 금주의 식사: 이만구 집사 권성자 집사 가정 -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계몽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천국시민양성

은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현정 집사(5교구)

마냥 어리기만 하던 큰딸 은초가 어느새 자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의 아이로 자라게 하시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울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초가 어떤 아이로 자라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학부형이 된 저는 무엇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아이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유아부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유치부를 거쳐 이제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를 통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요. 또한 작년부터 어린이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아이가 되고 말씀의 지혜도 자라가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



사드립니다. 새로운 학교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반석위에 서는 아이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아이로 자라길 원합니다. 은초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아이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노란 병아리같이 귀여운 유년부의 일학년 모두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서울교회 모든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며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 주실 줄 믿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달려가는 초등학교 첫 출발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어머니 된 저도 새로운 다짐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을 비롯한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2. 새로 개교한 호산나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3. 복환의 신앙자유와 인권회복 위하여
4.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교회오시는 길

